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최선

전주시,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 방화벽 등 화재안전시설 지원 ·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키로 했다.

시는 최근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전주지역 전기차 충전기는 총 4,813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현재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동주택 · 소방서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여부 △정상작동 여부 등 점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 하반기 중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당 조례에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 하반기부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 대응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상주차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과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중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개소 공동주택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835만 원 정도를 지원해 방화벽과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토록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건축설계 과정에서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 및 심의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20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민 노후 건강관리 역량 강화

시 보건소,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심뇌혈관질환 · 구강건강 교육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및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등 전문성을 지닌 은퇴 인력으로 구성된 교육 참여자들은 2인 1조를 이뤄 의료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으로 대상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안부 확인 및 필요한 도움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날 교육은 전주시민의 심뇌혈관질환 및 노년기 구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 3시간 동안 이식 전북대학교 교수와 조찬목 덕진보건소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및 구강질환 예방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해당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063-281-6333~6336) 또는 덕진보건소 건강증진센터(063-281-855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만성지구~기지제 안전한 보행육교로 잇는다

2025년 하반기 사업 완료 추진

전주 서부권 대표 친수공간인 기지제와 신도시개발지구인 전북혁신도시 · 만성지구가 안전한 보행육교로 연결된다.

전주시는 전주혁신도시부터 만성지구와 기지제, 황방산에 이르는 연속성 있는 보행로를 구축하기 위해 만성지구와 기지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교부세 8억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최근 일상 감사 등의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만성지구~기지제간 보행육교의 사업비는 총 40억 원(국비 8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22억 원)으로, 교량 연장 216m에 4m의 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행육교 위치도

전체 보행육교 216m 구간 중 교량부는 37m이며,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사로로 조성해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시는 경관성을 고려해 보행육교를 설계했으며, 육교 위에서 기지제 등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 조성도 계획했다. 또, 기지제 산책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포장 재질을 나무데크로 반영했다.

이에 앞서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송영진 전주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만성지구와 기지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난 2021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만성지구와 기지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설치되면 만성지구와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백제 로타리클럽, 거동불편 가구 일상생활 안전 지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백제 로타리클럽(회장 고영창)은 20일 여의동에 거주하는 거동불편 취약 가구 3세대를 방문하여 안전손잡이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취약가구 안전설비 지원 봉사활동은 신체 노화나 중증질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백제 로타리클럽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클럽회원들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낙상 위험요인을 파악, 주요 이동 동선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낙상 예방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대상 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도왔다.

전주백제 로타리클럽 고영창 회장은 "대단한 설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 여의동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는 전주백제 로타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복지 욕구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새학기 '안전한 통학길' 조성 캠페인 전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새학기를 맞아 20일 전주화산초교 및 중화산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유해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전주완산경찰서 학교전담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 예방을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표시 이행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 여부 △주류 ·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여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관심과 예방 활동이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